

## “추억의 시간여행 성공…아시아 문화축제로 거듭날 것”



### 총장축제 총감독 윤삼호 무등커뮤니케이션 대표

광주시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한 ‘제8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를 위해 5개월여의 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린 이들이 있다.

총장축제의 총감독 역할을 맡은 윤삼호(46) 무등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는 “아이디어는 ‘추억’에서 찾고 표현을 ‘세련’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축제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해 디자인을 만들어 표현했다”고 말했다.

무등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장축제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윤 대표이사는 정영균 연출감독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진두지휘했다. 특히 8개 무대에서 각기 다른 테마로 진행되는 공연과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뒀다.

윤 대표는 “동구청과 함께 축제를 준비했던 기획에서 100%가 나왔다면 현장에서 120%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며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돈을 벌고 그 돈을 소비하도록 하는 ‘콘텐츠 프로슈머’를 만들어 내는 행사를 기획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대상 공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추억의 합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거리페레이드에는 외국인 6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더 입체화됐다. 또 단순히 소품이 반복전시되는데 그쳤던 ‘추억의 시간여행’ 추억의 전시관에도 마인 등의 문화공연을 입혀 새롭게 재해석했다. 또 시민, 즉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광주가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작업이 있으면서도 국악, 미술, 음악 등 자신의 끼를 발산하기 위해 무대를 찾은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윤 대표가 총장로를 무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짧은 시절 총장로에서 추억을 쓴 사람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이다. 짧은 시절 베이스트로 총장로와 황금동을 오가며 랜드활동을 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추억들을 하나씩 끌어내 축제에 그려낸 것이다.

윤 대표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내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무대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제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아시아의 문화축제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윤평현 교수 세계 인명사전 등재



윤평현 전남대 국어문화과 교수는 국어학 분야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 2012년 판에 등재됐다.

윤 교수는 전남대 인문대학장과 국어문화학 대표이사로 역임했으며, ‘현대국어 접속어미’ 등 다수의 전문 학술서를 저술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故 정인영 명예회장 명예목포시민 추서



한라그룹은 정몽원 회장이 지난 1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9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으로부터 선진인 정인영 명예회장의 명예시민증서를 추서 받았다고 2일 밝혔다.

### 조선대 박영훈씨 KICA 최우수 논문상



박영훈 조선대 학생(군사학부 4년)이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주최로 최근 동국대 강당에서 열린 ‘제2회 KICA 전국대학원(KICA)생 우수논문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영훈 학생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전자전 대응 방안’ 논문으로 상을 받았다.

### 인사

#### ◆광주매일신문

▲ 전무이사 김대종 ▲주필·이사 남성숙 ▲편집국장 박준수 ▲부국장 겸 사회부장 이경수 ▲부국장 겸 편집부장 류연주 ▲부국장대우 정치부장 박상원 ▲정치부장 김종민 ▲논설위원 오성수

## 부산~광주 국토대장정 나선 이진섭·군도 부자

###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알릴 것’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또 대장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대장정을 벌였던 이진섭(47)씨와 군도(19)군 부자가 지난 1일 부산을 출발, 광주까지 걸어가는 ‘군도 세상걷기 시즌2’를 시작했다.

이씨 부자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장애인 통일엽원 가을숲체험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걸어서 김해·창원·진주·순천·목포를 거쳐 오는 28일 광주에 도착한다.

이번 대장정의 이동거리도 ‘군도’ 세상걷기 시즌1’ 때와 마찬가지로 600km에 이른다.

지난 도보 대장정을 통해 ‘장애인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이끌어 낸 이씨 부자는 이번에는 지역·자폐성 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기초생활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대장정 때 만나지 못한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대장정 때 만나지 못한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군도군도 “힘들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족들을 만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씨는 체중이 20kg이나 줄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2차 도보 대장정을 강행했다.